

설날 가정예배

인도자 : 가족대표

지금부터 설날가정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찬28장 ----- 다 같 이

-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같이 천국에도 이끄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대표기도 ----- 가 족 중

성경봉독 ----- 사무엘상 7:3-12(구약 418면) ----- 인 도 자

- 3)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 4)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 5)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 6)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 7)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 8)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 9) 사무엘이 젖 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 10)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 1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벧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 12)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설 교 -----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 가정 ----- 인 도 자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힘들고 지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 가정과 함께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새해를 열고 설날을 맞이하며 새로운 다짐, 새로운 계획,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만 섬기니라"(삼상 7:4)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가정이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면 다음의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기류가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사모하고, 이방 신도 섬긴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모습을 지적했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시는 열쇠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 23:4).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옮긴 다윗처럼 우리 가정도 여호와만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와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의 방해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도전에 반응하여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7절). 이미 패배감에 짓눌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에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사탄의 방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려는 시선을 흔들여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삼상 7:10).

사탄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보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념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그곳에 돌을 세워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이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에벤에셀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미스바'는 '망보다, 지켜보다'라는 의미이고, '센'은 '거칠다, 뾰족하다, 날카롭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는 것은 거칠고 뾰족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길 바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즉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원히 기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꿈에서 사닥다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며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곳을 '벧엘'이라고 지칭합니다(창 28:16-19).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셀 수 없을 정도로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셨음을 믿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펼쳐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함께하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올려드려야 할 하나의 고백, “여호와만 섬기리라.” 올 한 해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 송 ----- 찬384장 ----- 다 같 이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밟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기도문 ----- 다 같 이

2025 K

가정예배지

